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**[제보자]** 이 저 종달리 옛날 옛날 사름인디 아주 옛날에 사삼사건 막 전에 혼 백오십 년 넘었어. 백오십 년 넘어신디, 그 처녀는 처녀는 막 가난허게 살곡 영 해도 놈을 막 줘. 놈을 주다네 그 처녀 죽었거든.

또 경허곡 그 마을에 부자 하르방은 막 부제로 살면은 에 장르빗지레 가그네 장르 드렌 허주게. 빗저 줍센 허면은 이제 말허든 혼 뉘주면은 두 뉘 받곡 두 뉘 주민 석 뉘를 받았어. 석 뉘를 받아 노나네. 그 하르방이 죽게 뉘난 하르방 입으로.  
“스물넷 시간은 묶으지 말라.”

입으로 말썸을 헨 모양이라. 경헝 스물넷이 사름 죽으민 일곱메 묶으주게. 묶으질 안 현 내불었어. 스물넷 시간을, 넷시간을 내불었인디 저승을 가단 가단 간 보난 이제 그 우리 질칠 때 지옥문? 추록 열두 문에 인정 걸멍 그 어느 문지기에는 뭐가 잇구나 허는 식으로 막 불난 디도 잇고, 막 베움 나오는 디도 잇고 이제 칼헤네 뭐 허는 디도 잇고 그거 넘으멍 넘으멍 넘으멍 간 저승을 갓인디, 이제 그 처녀가 저싱을 간 보난, 막 창고에 쏴이 많이 데메지곡, 하르방 창고에 간. 보니깐 산디짚 하나백인 없어. 하나백인 엇이난

“너 이제 아직 올 시간이 멀었이난, 가그네 니가 문딱 장네 받아온 거 다 주곡 경헝 굿헤도그네. 멧 년 뉘건 오라. 응 너가 멧 십 년 혼 삼십 년은 더 살앙 오라.”

게난 저싱은, 이싱은 삼십 년이민 저싱은 삼 년이여.

**[조사자]** 처녀한테 곶은 게 아니고?

**[제보자]** 아니 아니. 그 처녀는 쏴이 많이 잇언. 데메졌이난, 그디 간 장네 빗전 허난, 그 처녀가 허는 말이

“우리 집이 가민 막 곤란헿일 거난, 그 걸 헤여그네. 우리 동무덜 살게 헤동옵서.” 경 헝.

**[조사자]** 하르방한티?

[제보자] 하르방한테 곤고 하르방이 오단 보난, 이제 막 조침가례기로 막 때렸어. 그 사람을 막 나쁜 짓 한 사람을 조침가례기로.

[조사자] 조침가례기가 뭐고?

[제보자] 옛날 조, 조, 조 남 잇잖아. 그걸로 때리난 그것이 혼 번 때리고 두 번, 그것이 쥬를 이제 벗이는 거렌. 저싱 간 해난 막 때려 가난 멧 번을 때리난.

“너는 이젠 쥬를 풀렀다.” 경 헨.

[조사자] 다시?

[제보자] 응. 다시 이싱 가렌 허곡 보내곡.

[조사자] 하르방?

[제보자] 응. 하르방 딴 하르방이 경 헤영 보내연 이제 이싱더레 나왔고 지는 이젠 저싱 저 사자가 돌려보내난 거나네 스물네 시간 딱 뉘자 말자. 소양기 불명 살아났거든 하르방이 살아난

“혼저 날 받으라. 아무집이 쓸 앓다다 주라. 아무디도 돈 앓다주라.”

경 헤동 굿을 삼데틀어 낵 굿을 헛어. 굿을 헤서 액을 막안. 경 허난 삼십년을 더 살았다고 헤. 저싱을 사흘인데 이싱은 삼십년이라.

[조사자] 그 부자 하르방이 처녀.

[제보자] 처녀 집도.

[조사자] 처녀 집도 도와준 거?

[제보자] 응. 처녀도 경 험 도와주고 그 저 그 저 쥬를 벗어나오젠 허난 도와줘 동 나와네 험헤난 그 후에는 잘 누게 돈 빚지레와도 하영 안 받고 쓸 득렌 헨 가도 하영 안 받고 험 죽엇젠 그런 역사가 있어.

- 핵심어 : 구좌읍 종달리, 저싱, 처녀, 부자, 하르방, 저싱 창고